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은 자신의 꿈을 찾아서

김건수 교장선생님

올 3월 세계적인 바둑천재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결하는 바둑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만해도 이세돌은 5국 가운데 한두 판을 내주면 많이 내주는 것으로 여기고 승리를 자신하였다. 경주의 수가 무한에 가까운 바둑에서는 알파고가 인간의 상대가 될 수 없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국이 시작되자 결과는 이세돌이 1승4패로 패하는 결과를 가져와 세계인들을 경악에 빠뜨렸으며 알파고가 일순간에 미래 사회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인류의 탄생 이후 문명발달로 도구와 기계들이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을 대신해 왔지만, 최근에 들어와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까지 대신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상식과 같은 것들을 영원히 복제할 수 없을지, 아니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능력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47%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며 영국 옥스포드대학이 발표한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할 직업으로 스포츠경기 심판, 요리사, 운전기사, 웨이터, 그 외에도 국회의원, 판사 같은 직업이 꼽혔다.

9월부터 고3 학생들의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학과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오랫동안 했으면 합니다.

7월 31일 제5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본교 야구부가 강호 성남고를 8대2로 이기고 우승하여 동산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는데, 올 대학입시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모두 진학하길 기원합니다. 翻